



## 돼지축제 벌이는 발리엠 원주민들



—홍보부—

인도네시아 발리엠 계곡의 원주민들은 추장의 생일이나 다른 부족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대대적인 돼지축제를 벌인다.

발리엠 계곡의 원주민들에게 돼지는 귀중한 재산이고, 그 수는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좀처럼 먹을 기회가 드물어 장례식이나 축제때가 되어야 맛을 볼 수 있다.

또 일부다처제의 다니죽은 부인을 한 사람씩 맛을 때마다 돼지 5~6마리를 신부의 가족에게 사례로 준다. 현지 부락중의 하나인 “피라밋”이라는 마

을의 촌장은 최근에 72번째 새 부인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돼지축제는 발리엠 계곡의 원주민들에게는 중요하고 큰 행사다. 추장의 생일이나 장례식 등에 보통 돼지축제를 하고, 때로는 다른 부족과의 평화조약을 맺을 때 대대적인 돼지축제를 벌이곤 한다.

돼지축제는 전통적인 그들의 풍습대로 한다. 먼저 신성한 의식을 끝낸 후 활로 돼지의 심장을 찌 죽인 다음 죽은 돼지를 풀 위에 놓고 한편에서는 나무의 마찰을 이용해서 불을 피워 돌을 뜨겁게 만든다. 추장은 죽은

돼지의 털을 태우고 화식조(火食鳥) 칼(새의 뼈로 만든 칼)로 돼지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 호박잎으로 피를 닦아낸다.

요리는 대부분 남자들이 하고, 여인들은 불옆에서 춤을 춘다. 약 2시간동안 추장의 지시하에 빈틈없이 진행된 축제가 끝나면 돼지고기요리를 나누어 먹는다. 원주민들은 추장의 지시에 따라 차례를 기다렸다가 먹게 되는데, 추장의 아들만은 다른 원주민들보다 먼저 먹는 특권이 주어진다. **홍보부**